

우치무라 간조(內村鑑三)의 국가 인식과 타자 인식
- 그의 애국심의 문제를 중심으로

박은영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논문요약

우치무라가 살았던 시대는 근대 일본이 서구 제국주의의 충격을 받고 개국한 이래 천황제국가로서 국가적 통일을 달성한 시기로, 그에게 애국의 대상이었던 일본이라는 국가는 대일본제국헌법과 교육칙어를 통해 구축된 천황제라는 종교적 권위를 전면에 내세우고 ‘신민’의 충성과 복종을 고취하는 형태를 띠고 있었다. 곧 천황제 국가체제에 대한 ‘절대적 복종’의 틀에 갇혀 국가에 대한 충성이 무조건적인 복종을 의미한다고 여겨졌던 것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치무라는 국가에 대한 기독교로서의 책임은 양심에 따른 복종과 저항, 곧 무조건적인 충성이 아니라 비판적 충성의 자세를 가져야 하는 것에 있다고 주장했다. 우치무라의 이와 같은 자세는 그의 애국관 혹은 충성관이 독특한 지위를 차지하게 하는 지점이다. 그러나 타민족 조선인식에서도 드러났듯이 우치무라의 애국심은 일국적인 것으로 국가주의의 장벽을 넘지는 못했다는 한계를 지적할 수 있다.

I. 머리말

메이지 정부는 1889년 2월 대일본제국헌법을 통해 법적으로 보장된 천황제 시스템을 확립하고 천황의 권위 아래 모든 것을 복속시켰다. 곧 천황의 주권이 ‘신들’의 계보에 선 만고불변의 교의라는, 이른바 만세일계(萬世一系)에 기초한 천황의 신성성과 불가침성을 정면에 내걸었던 것인데,¹⁾ 이 구조 안에서는 보편적으로 타당한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인정받는 국민은 존재할 수 없고, 오직 천황의 백성으로서의 ‘신민’만이 존재할 뿐이다. 나아가 이 시스템을 강력하게 뒷받침하기 위한 국가윤리 장치로서 1890년 10월 교육칙어를 반포하여 천황의 이름으로 국민도덕의 규범을 보이고, 천황이 국민이 살아갈 길을 결정하는 권위를 갖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土肥昭夫, 2004: 110-111) 그것은 만세일계의 천황의 덕치와 신민의 충효를 국체의 정화로 하고, 이를 실행하는 것에 의해 천황에의 충성을 다해야 함을 제창했던 것으로 학교교육의 근간으로서 행해졌다.(同志社大学人文科学研究所編, 1996: 18)

그런데 이 과정에서 천황제 국가에 대한 무조건적인 소속의식에 문제를 제기하여 ‘비에국적’ 혹은 ‘비국민’으로서 배제되었던 인물도 존재했다. 주지하다시피 교육칙어 반포 직후인 1891년 1월 일어났던 ‘우치무라 간조(內村鑑三) 불경사건’은 종교적 신앙에 기반한 국가권력과의 대립을 가장 상징적으로 나타냈던 사건이었다. 마루야마 마사오(丸山眞男)는 신

1) 大日本帝國憲法, 第1條 「大日本帝國ハ万世一系ノ天皇之ヲ統治ス」, 第3條 「天皇ハ神聖ニシテ侵スヘカラス」 (<http://www.houko.com>)

양의 입장에서 온 몸으로 국가적 충성의 문제와 정면에서 대결했던 사상가로서 우치무라를 꼽기를 주저하지 않는다. 즉 천황에 대한 충성만이 유일한 길로 여겨졌던 당시 상황에서 근대적 의미의 종교에 의해 개인의 자율적 판단에 의지했던 이 행위는 근대적 ‘자아’ 형성이라는 측면에서 충분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박충석 외역, 1998: 89) 또한 우치무라는 청일전쟁 이후 본격화된 제국주의 일본의 침략전쟁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열광적인 지지를 보내던 상황 속에서, 더욱이 기독교계마저 현실의 문제와 신앙을 분리하여 주전론의 가치를 내걸고 전쟁의 협력자가 되어 충성의 길을 걸어 갈 때 비전론을 주창하며 전쟁의 불의함을 지적하였다. 특히 애국심에 이끌려 국가의 전쟁에 적극적으로 협력 중이었던 일본 기독교계 주류를 향해서는 ‘맛을 잃은 소금’으로 평가하고 결국 쓸모없으며 밖에 버려질 뿐이라고 신랄하게 비판하기도 하였다.(박은영, 2013: 140) 이처럼 전쟁이라는 상황 속에서 비전론을 주창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국가를 초월해 보편성을 갖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로, 비전을 외치는 주체에 있어서 국가와의 대결을 피할 수 없다. 여기서 우치무라의 비전론의 한계로 언급되는 ‘양심적인 전사’라는 행동양식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곧 ‘양심적 병역 거부’가 아닌 ‘양심적 전사’는 결국 비전론자가 전쟁을 일으키는 세력에 저항하기 보다는 결국 순응하게 되는 자기모순적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국가권력에 대한 엄밀한 의미의 저항이 결여되어 있었던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양현혜, 2011: 244-245)

이상을 염두에 둘 때 근대 일본에서 기독교에 입신했던 초기 신자들과, 나아가 비서구 세계의 기독교 입신자들에게 있어서 공통되는 사상적 과제로서 애국심과 기독교 신앙을 어떻게 관계 맺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는 그만큼 어렵고도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실상 우치무라 역시 열렬한 애국자였으며, 그 시대 사람들이 공통의 과제로 지녔던 국가주의를 자기 생존의 근거로 파악하며 이것에 내면적으로 관계하는 가운데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있었다.(土肥昭夫, 2004: 192) 나아가 자신이 받는 여러 고난에 대해서도 사랑하는 일본의 자유의 실현을 위해 신이 준 시련으로서 감수하고 일본인으로서 기독교인으로서 각각 분명한 책임의식을 가지고자 했다. 이것은 그의 일본(Japan)과 예수(Jesus)에 대한 사랑, 곧 ‘두 개의 J’에 대한 사랑으로 표명되었는데, 그의 종교는 이 두 가지를 떠나서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었다.²⁾ 여기에서 우치무라의 애국관 혹은 충성관이 차지하는 독특한 지위를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우치무라의 국가인식의 문제를 그의 애국심에 관한 논설을 검토하는 것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나아가 국가를 초월한 보편성 실천의 심화 가능성을 알아보기 위해 그의 타자인식, 구체적으로 조선인식을 실례로 검토하여 그의 독특한 애국관의 양상을 고찰해 보기로 한다.³⁾

II. 국가 인식 문제

2) 内村鑑三, 「第二回夏期講談會に於いて讀まれし聖書の部分並に其略註」, 『聖書之研究』 12号, 1901.8.25, 『全集』 9, 293. 본고는 역사논문으로서 1차 자료의 인용이 많다. 특히 각각의 원자료들의 서지정보는 본 논문의 이해에 있어서도 중요한 정보가 되므로, 원자료의 인용에 있어서만은 논지의 이해를 돕기 위해 통상적 APA방식이 아니라 자료의 전체 정보를 기재하여 참고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이하에서는 원문출처의 저자명 ‘内村鑑三’은 생략하고 원문의 상 세서지만 표기하고, 『内村鑑三全集』은 『全集』으로 표기 후 권호 정보와 페이지수만 기재 하였다.

3) 우치무라에 대한 기존의 연구는 크게 그의 기독교 사상, 곧 무교회주의 사상에 대한 검토를 비롯하여 불경사건과 비전론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뤘다.(양현혜, 2010: 231-232 ; 박은영, 2013: 128-130)

1. 허위의 애국과 진정한 애국

주지하다시피 우치무라는 어린 시절 기독교에 입신할 때부터 예수와 일본, 곧 Jesus와 Japan을 ‘두 개의 J’로서 부르며 두 개의 중심을 가진 타원에 빗대고 있었다. 그리고 자신은 이 둘 중 어느 쪽을 더 많이 사랑하는지 결코 답할 수 없는 존재로서, 다만 “나의 일생은 이 둘을 섬기려는 열심에 격려되어 금일에 이른 자”⁴⁾ 라는 것이었다. 따라서 우치무라에게 있어 신앙은 나라를 위한 것이고 애국심은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며, 그리스도를 떠나서 진심으로 나라를 사랑할 수 없듯이 나라를 떠나서 열심으로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 없었다.⁵⁾

이러한 우치무라에게 애국이란 ‘허위의 애국’과 ‘진정한 애국’의 두 종류로 구분되어 있었다. 곧 개인의 명예와 영달을 목적으로 하는 애국은 설령 군국(君國)을 위해 몸을 바치더라도 실제로는 허위의 애국이고, 진정한 애국은 자기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 곧 그 자신이 국적(國賊)이라는 이름을 받아 죽더라도 나라를 위해 진력하고자 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애국이라는 것이다.⁶⁾ 이러한 우치무라에게 진정한 애국의 길은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

나는 나의 사랑하는 이 나라를 금일 곧장 구할 수 없다. 그렇지만 나는 백 년 또는 천년 후에 이를 구하는 기초를 놓기를 원한다. ... 나는 우리나라를 세세의 반석되는 우리 신에게 위탁하고, 세상의 정치가와 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예언자와 같이, 사도와 같이, 대시인과 같이, 대철학자와 같이 영원한 진리를 이야기하고 영원히 우리나라를 구할 길을 놓고자 한다.⁷⁾

즉 우치무라는 정신적 기초로서 기독교를 강조하는 것을 통해 일본을 구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애국이라고 여겼던 것이다. 그리고 우치무라에게 구체적인 애국심의 발현이라는 측면에서 모범이 될 만한 이는 성서 속 예수의 애국심이었다.

예수에게 높고 깊고 강한 애국심이 있었다. 때문에 그의 제자인 우리도 또한 이것이 없으면 안된다. 우리들도 또한 우리들의 나라를 사랑하지 않으면 안된다. 게다가 예수처럼 이를 사랑하지 않으면 안된다. 즉 외적(外敵)보다도 내적(內敵)을 증오하지 않으면 안된다. 우리들 중에도 또한 많이 존재하는 학자와 바리새인의 부류에 대해 저들의 얼굴을 두려워하지 않고, ‘위선자여’, ‘독사의 무리여’ 라고 부를 용기를 가지지 않으면 안된다. 곧 검으로서 하지 않고 의로서 나라를 구하는 행위에 나가지 않으면 안된다. 이와 같이 우리들의 애국심을 사용하여 우리들 또한 예수가 그 나라 사람에게 미움 받았던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미움 받음에 틀림없다. 이와 같이 어떤 종류의 십자가는 우리들 위에도 마찬가지로 놓아질 것임에 틀림없다. 그렇지만 나라에 이와 같은 애국자가 나오지 않으면 그 나라는 영원히 존속할 수 없다. 우리들이 만일 진심으로 우리들의 국가를 사랑한다면, 우리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더라도 예수와 같이 우리들의 나라를 사랑하지 않으면 안된다.⁸⁾

그러므로 우치무라에게 있어 기독교인이 따라야 하는 예수의 애국심은 국외보다도 국내에 눈을 두고, ‘내부의 적과 대적’ 하는 것이었다. 우치무라는 이와 같은 논리에서 ‘사랑하는 예수’가 가르친 애국심에 따라 그 자신 역시 ‘사랑하는 일본’에 대한 의분을 품고, 국가

4) 「私の愛國心に就て」, 『聖書之研究』 306号, 1926.1.10, 『全集』 29, 351

5) 「失望と希望(日本國の先途)」, 『聖書之研究』 33号, 1903.2.10, 『全集』 11, 49

6) 「奇跡の信仰」, 『聖書之研究』 54号, 1904.7.21, 『全集』 12, 259

7) 「所感-我が愛國心」, 『聖書之研究』 95号, 1908.1.10, 『全集』 15, 318

8) 「イエスの愛國心」, 『聖書之研究』 122号, 1910. 8.10, 『全集』 17, 308-309

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을 논하고자 노력했던 것이다. 따라서 우치무라에게 “국가의 보존상에서 볼 때 예수의 애국심은 최우등의 것”⁹⁾ 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이 지점에서 그의 ‘두 개의 J’는 상호 완벽하게 연결되어 있었다.

여기서 우치무라의 ‘애국’, 곧 ‘내부를 비판하고, 내부의 적과 대항하려는’ 논리의 구조와 그 내용을 좀 더 검토해 보자. 곧 우치무라에게 ‘애(愛)’는 무조건적으로 사랑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의(義)’를 수반하지 않으면 안되는 보다 적극적인 개념이었다. 다음의 두 인용을 보자.

신은 애(愛, 이하에서는 ‘사랑’으로 번역함)이다. 때문에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푸신다. 신은 의(義)이다. 때문에 노하시고, 책망하시고, 벌을 내리신다. 신은 의에 거하며 사랑해 주신다. 사랑하기 때문에 노하시고 또한 채찍질 하신다. 신의 사랑을 떠나서 그 의는 없는 것과 같고, 신의 의를 떠나서 그 사랑은 없다.¹⁰⁾

애(愛, 이하에서는 ‘사랑’으로 번역함), 사랑이라고 말하고 사랑만을 고조해서는 사랑은 식는다. 사랑은 정의가 없는 곳에서 번창하지 않는다. 정의가 없는 사랑은 햇빛이 없는 습기와 같다. 곰팡이를 생기게 하고 만물을 부패시킨다. 만일 신이 사랑만으로서 (있어 주시고 - 인용자), 동시에 또한 빛이나 의로서는 있어 주시지 않으면, 우주는 병으로 멸망하고 잃고야 말 것이다. 진정으로 만일 기독교가 사랑만을 설파하는 종교라면 이 이상 나쁜 것은 세상에 없는 것이다. 예수가 가르쳐 말씀하시기를 ‘저희들 마음 속에 소금을 가져야 한다. 또한 서로 화목해야 한다’ 라고. 알아야 한다. 매서운 정의의 소금이 없는 곳에 진정한 화목이 없음을. 사랑의 단맛만을 요구하고 정의의 소금이 빠진 곳에서 사랑은 평화의 열매를 맺지 않는 것이다.¹¹⁾

우치무라는 예수를 모범으로 두고 ‘의’에 기반한 ‘애’의 실천, 곧 애국심을 발휘하는 것을 통해 예수의 충실한 제자가 되려고 했다. 그리고 그것은 국외가 아닌 국내에 눈을 돌려 일본 국내에 존재하는 악을 발견하고 비판하려는 자세였던 것이다.

2. 복종과 저항

그렇다면 이상과 같이 우치무라가 애국하지 않으면 안되는 일본이라는 ‘국가’와의 거리와 취해야 하는 자세는 어떤 것이었는지의 문제를 깊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이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서 우치무라가 1921년부터 1922년까지 약 2년 여에 걸쳐 심혈을 기울여 수행했던 ‘로마서 연구’에 나타난 국가 인식을 살펴보자. 우치무라의 ‘로마서 연구’는 일본인 기독교인의 손에 의해 수행된 최초의 본격적인 ‘로마서 연구’로 여겨지며, 국가주의적 풍조에 편승하지 않은 소수파 기독교인의 가장 체계적인 신앙의 표명으로서도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는 노작이었다.(宮田光雄, 2010: 337) 우선 우치무라는 “국가를 사랑해야 한다. 나를 괴롭히는 국가라도 사랑해야 한다”¹²⁾ 라고 말한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정치적 권능

9) 「イエスの愛國心」, 『聖書之研究』122号, 1910. 8.10, 『全集』17, 308

10) 「愛と義」, 『聖書之研究』226号, 1919.5.10, 『全集』24, 555

11) 「愛と義」, 『聖書之研究』269号, 1922.12.10, 『全集』27, 255 ;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마가복음 9: 50 개정개역).

12) 「羅馬書の研究」(第五十三講 政府と國家に對する義務 第十三章一節一七節の研究 五月廿八日), 『聖書之研究』247-268号, 1921.2.10~1922.11.10, 『全集』26, 401

또한 모두 신의 세우심을 받았기 때문으로, 기독교인이라면 반드시 이 세상의 정치적 권능에 복종해야 한다는 것이다.¹³⁾ 그리고 그 구체적 실행 방법은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

바울의 이 국권복종론은 12장의 애(愛, 이하 ‘사랑’으로 번역함) 및 애적(愛敵)의 가르침에서 저절로 나온 것이다. 즉 어떠한 사람이라도 사랑하고, 적이라도 사랑하는 것이 기독교의 길인 이상, 좋은 국가에 대해서도 악한 국가에 대해서도 복종과 사랑으로서 대하고, 설령 폭압 치하에 있어서라도 역시 나를 학대하는 권능자에게 복종하고 동시에 이를 사랑하는 마음을 품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바울의 이 국권복종의 근거에 가로놓인 것은 그리스도적 사랑의 대정신이다.¹⁴⁾

우치무라는 로마서에서 바울이 권면했듯이 국민이 ‘그리스도적 사랑의 대정신’을 가지고 이 세상의 정치적 권능에 복종하는 것은 일국의 평화로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고 여겼다. 그런데 현실에 존재하는 국가권력의 기원과 정당성의 근거로서 ‘신으로부터 나온 권위’라는 점이 전제가 되어 있다는 사실은, 바울이 말한 세속적 권위에 대한 복종이 다만 무조건적인 복종이 아니라 이 세상의 궁극적 근거가 되는 신의 뜻을 염두에 둔, 곧 ‘양심’에 따른 복종이 되도록 하는 지점이다.

이에 따라 우치무라가 국가에 대한 무조건적인 복종이 아닌 양심에 따른 복종을 상정하고 있었던 것이라면, 양심에 어긋나는 복종이란 존재할 수 없음은 물론, 오히려 이번에는 ‘양심에 따른 저항’의 시점이 출현할 수밖에 없게 될 터이다. 이 점에 주목하는 것이야말로 우치무라의 애국관, 혹은 충성관을 생각함에 있어 중요하다. 우치무라는 만일 정부의 부패가 지극하여, 명백하게 백성의 적이 되었을 경우, 혹은 자국이 압제국의 판도에 속하여 폭력과 횡포로 괴로운 경우와 같은 상황을 전제하고, 이러한 경우에 이에 반항하여 혁명독립의 깃발을 펴려는 것이 가한가 라고 질문을 던진 뒤 다음과 같이 대답한다.

이 문제에 대해 우선 주의해야 하는 것은, 이와 같은 경우가 심히 드물다고 하는 것이다. 그리고 드문 어떤 경우에 어느 정권에 반항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그 때문에 보통의 경우의 반항이 정당하다고 말하는 것은 될 수 없다. 바울은 여기서 기독교의 평소의 마음을 가르쳤던 것인데, 평소의 경우에는 정권에 복종해야 한다는 원리를 말한 것이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특별한 경우에 있어서는 어떠한가. 바울은 일반의 원리를 논했을 뿐으로 특별한 경우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정신에 있는 바를 보면, 특히 주 예수의 마음에 호소하여 보고 이러한 경우에 대한 최상의 길을 대략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즉 정치의 비위(非違)가 극에 달하여 백성이 모두 괴로운 경우와 같더라도 기독교는 평화적 수단으로만 호소해야 한다. 우선 겸손과 평화(靜和)로서 권능자에 향해 항의(프로테스트)해야 한다. 몇 번이라도 반복해서 항의하고, 기타 평화를 넘지 않는 범위에 있어서 모든 길을 취해야 한다. 백절불요(百折不撓)의 마음으로서 목적의 관철을 기도해야 한다. 그러나 그 목적이 달성되지 않는다고 해서 무기에 호소하는 반란을 일으켜서는 안된다. 평화적 수단 만에 한하고 성패(成敗)는 모두 대능(大能)한 손에 맡겨야 한다.¹⁵⁾

이를 정리하면, 우치무라는 ‘심히 드물다’는 것을 전제하기는 하였지만 국가가 부패하여 압정을 행하는 ‘특별한 경우’에는 국가를 향해 ‘항의’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다. 단 이 때

13) 「羅馬書の研究」(第五十三講 政府と國家に對する義務 第十三章一節一七節の研究 五月廿八日), 『聖書之研究』247-268号, 1921.2.10~1922.11.10, 『全集』26, 402

14) 「羅馬書の研究」(第五十三講 政府と國家に對する義務 第十三章一節一七節の研究 五月廿八日), 『聖書之研究』247-268号, 1921.2.10~1922.11.10, 『全集』26, 403-404

15) 「羅馬書の研究」(第五十三講 政府と國家に對する義務 第十三章一節一七節の研究 五月廿八日), 『聖書之研究』247-268号, 1921.2.10~1922.11.10, 『全集』26, 405-406

무력에 호소하면 안되고 어디까지나 ‘겸손하고 평화(靜和)’한 평화적 수단으로만 호소해야 한다. 이것이 기독교자가 취해야 할 최상의 길로서 그 이외의 모든 성패는 전능한 신의 손에 의탁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었다. 다음의 글에서도 우치무라의 기독교자로서의 복종과 저항의 시점을 잘 확인할 수 있다.

정치가 부패하여 불합리를 멈추지 않는 경우에는 어떠한가? 기독교자는 가능한 한 인내한다. 그렇지만 불의부정이 극도에 달해 인내할 수 없기에 이르면 어쩔 수 없이 항의한다. 우리는 불의는 불의하다고 명언한다. … 그러나 이 이상으로 저항하지 않는다. 기독교자는 검을 빼서까지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고 하지 않는다. 생명을 걸고 정의를 외친다. 그리하여 정의를 외치는 것 때문에 이 세상의 권력자가 죽이려고 한다면, 신을 믿고 자기를 저가 하는 대로 맡긴다.¹⁶⁾

우치무라에게 있어 불의를 불의하다고 명언하는 행위는 신앙자로서의 양심에 따른 저항을 의미한다. 그러나 저항의 방식으로서 생명을 걸기까지라도 검을 빼서 저항하는 무력에 의한 방식은 거부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다. 나아가 자신을 억압하는 압제자라도 사랑으로서 용서하는 태도야말로 기독교자가 궁극적으로 취해야 할 진정한 태도라고 결론짓는다.

이러한 우치무라의 비폭력의 논리는 그의 절대비전평화사상과 밀접하게 연결되는 것으로, 그는 전쟁으로 평화에 도달하려는 방법에 대해 일체 거부하며 자유와 평화, 독립, 일치에 도달하는 최고의 길은 예수가 취했던 무저항주의뿐이라고 언명했던 것이다.(박은영, 2013: 138) 왜냐하면 무력의 행사는 또 다른 무력을 초래할 뿐으로, 무력을 행사한 시점부터 기독교인으로서의 ‘애적’의 정신을 잃어버리게 되기 때문이다.¹⁷⁾

이상과 같이 우치무라가 국가에 대해 양심에 따른 복종과 저항의 시점 둘 다를 견지하고 있었던 점은 근대 일본 사상사에 있어서도 독특한 지위를 차지하는 지점일 것이다. 곧 우치무라는 당시 ‘애국’이라는 이름 하에 국가에 대한 ‘절대적 복종’의 틀에 갇혔던 대다수의 사람들을 향해 ‘허위의 애국’이라고 비판할 수 있었고, 그러한 일반적 애국심에 영합하는 길에서 단호히 떠나 비전론을 주창할 수 있었던 것이다.

여기에서 앞서 언급했던 우치무라의 ‘양심적 전사’라는 문제를 다시 생각해 보자. 이상의 우치무라의 복종과 저항의 관점에서 이해할 때, ‘양심적 전사’라는 것은 국가 권력에 대한 저항이 완전히 결여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은 아닐까. 현실의 국가 권력이 명하는 바에 따라 전쟁에 나가야 하는 ‘복종’의 문제와 ‘저항’의 방식으로서의 비폭력, 무저항주의를 염두에 둘 때, ‘양심적 전사’라는 형태는 자기모순적 결과를 초래함에도 불구하고 그의 두 개의 J사상에서 촉발된 애국의 방식이었다.¹⁸⁾

그런데 이제까지 ‘진정한 애국’을 내걸고 ‘불의’에 대한 ‘저항’의 시점을 관철하는 것을

16) 「羅馬書講演約說」(第五十三講約說 政府と社會), 『聖書之研究』258-269号, 1922.1.10~1922.12.10, 『全集』27, 84-85

17) 미야타는 우치무라가 ‘애적’의 정신에 의한 비폭력적 시민적 저항을 요구하는 것이야말로 그가 상정한 ‘복종’의 한계를 넘는 해방의 길이었다고 평가하기도 한다.(宮田光雄, 2010: 340)

18) 따라서 우치무라는 실제로 양심적 병역거부로 고민하던 청년 사이트에 대해 만일 ‘양심’의 명령에 따른 것이라면 스스로 책임을 지고 행할 것이라고 권고하기도 했다. 미야타는 우치무라의 ‘양심적 전사’와 관련하여, “양심적 반전사상을 철저화하고 순수화하는 것에 의해 ‘순교’의 죽음이라는 관념에 도달하고 있다고는 해도, 독일의 본 웨퍼가 선택했던 저항의 길, 양심적 병역거부에 비교하면 소극적인 인상을 불식할 수 없다” 라고 평가하였다. (宮田光雄, 1978: 97-100)

통해 국가와 일정한 간격을 유지했던 우치무라에게 있어 그의 애국심과 가장 충돌한 부분은 조선 문제가 아닐까. 우치무라는 국가가 타국, 타민족에 저지르는 불의에 대해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는가. 무엇보다 우치무라가 상정하는 ‘특별한 경우’, 곧 정부의 부패가 지극하거나 혹은 자국이 압제국의 판도에 속하여 폭력과 횡포로 괴로움을 겪는 경우에 ‘프로테스트’가 정당화된다고 하면, 조선인에게 있어 일본 식민정부에 항거하는 것이야말로 우치무라가 말한 그 ‘특별한 경우’에 해당되는 것은 아닌가. 다음에서 우치무라의 조선 인식 문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자.

III. 조선 인식 문제

1. 「행복한 조선국(幸福なる朝鮮國)」

우치무라가 청일전쟁을 조선의 독립을 지키고, 동양 전체에 신문명을 전하기 위한 ‘의전’으로 인식했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따라서 일본이 전쟁에 승리하는 것은 조선의 독립이 보전될 수 있는 길이 될 터였다. 그러나 그의 생각과는 달리 조선의 독립은 더욱 위태해졌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러일전쟁을 통해 조선에서의 러시아의 영향력을 배제하는 것에 성공한 일본은 을사보호조약의 강제, 통감부의 설치 등을 단행하며 한국 병합에의 길을 급속도로 추진해 나갔다. 이러한 가운데 우치무라는 1907년 조선의 대부흥운동 소식을 접하고 다음과 같은 글을 남겼다.

듣기에 조선국에 현저한 성령의 강림이 있다고 한다. 행복한 조선국. 그녀는 지금은 그 정치적 자유와 독립을 잃고 그 심령적 자유와 독립을 얻고 있는 것 같다. 바라기는 일찍이 동양문화의 중심이 되어 이를 해동의 섬 제국(帝國)에까지 미치게 했던 그녀가 지금은 또 다시 동양 복음의 중심이 되어 그 광휘를 사방에 비치기를. 신은 조선국을 경멸하지 않으시고 조선인을 사랑하신다. 저들에게 군대와 군함을 주지 않으셨으나 이 보다 뛰어나고 더욱 능력 강한 성령을 내려주셨다. 조선국은 실망할 것이 없으며 옛날 유대가 그 정치적 자유를 잃고 나서 종교로서 서양 여러 나라를 교화시킨 것처럼 조선국도 역시 정치적 독립을 잃은 금일, 새롭게 하나님의 복음에 접하여 이로써 동양 제국(諸國)을 교화할 수 있다. 나는 조선에 새롭게 성령이 내리심을 듣고 동양의 장래에 큰 희망을 이어나가며, 아울러 신의 섭리가 사람의 사념(思念)을 넘어 넓고 큰 데 놀라지 않을 수 없다.¹⁹⁾

이 논설을 통해 제2차보어(Boer)전쟁(1899-1902) 당시 보어인을 위로했던 우치무라의 모습을 떠올릴 수 있다. 이 전쟁은 우치무라에게 있어 의전론과 비전론을 구분 짓는 중요한 경계점이 되기도 하였던 사건인데, 남아프리카 전쟁으로도 알려진 이 전쟁은 네덜란드계 보어인이 세운 트란스발 공화국 및 오렌지 자유국의 연합군과 영국과의 전쟁으로 이 지역에서의 다이아몬드 및 금광에 관련된 이익 때문에 발발했다. 우치무라는 이 전쟁에서 보어의 작은 두 나라를 지지했는데, 장기에 걸친 전쟁 끝에 영국이 승리함에 따라 이 두 나라의 영토는 영국령이 되었고 최종적으로 영국의 식민지가 되었다.(박은영, 2013: 135) 여기서 우치무라는 보어인에게 ‘잃은 것은 국토, 정치상 자유와 독립, 광산, 목장’ 등과 같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지만, 이제부터는 ‘세계 제일의 선교사가 되어 신의 진리를 전하는 일에

19) 「所感－幸福なる朝鮮國」, 『聖書之研究』 92号, 1907.10.10, 『全集』 15, 209-210

힘쓰는 것이야말로 실로 작은 것을 잃고 큰 것을 얻게 되는 일' 입을 확신한다고 말하고 있었던 것이다.²⁰⁾ 그리고 이와 동일한 맥락에서 정치적 자유를 잃은 대신 심령적 자유를 얻은 조선 역시 동양의 교화를 위해 힘써야 하는 신의 섭리가 있어 '행복한 조선국'이 될 수 있었다.

또한 1909년 12월에는 「조선국과 일본국 - 동양평화의 꿈」이라는 표제의 논설이 발표되었다. 이 글 역시 앞의 논설과 대체로 동일한 논조로 쓰여져 있었는데, 정치의 자유를 잃은 조선에 신이 영의 자유로 갚아주신다는 것으로, 전술한 보어인에 대한 시선과 차이가 없다. 더욱이 영의 재산을 얻은 조선에 비해 영적으로 손실을 입고 타락해있다고 느낀 일본의 상황을 바라보며 “신은 오히려 조선국을 구원하시고 일본국을 버리시는 것이 아닌가”²¹⁾ 라는 걱정은, 기독교로서 정신적 기초를 놓는 것을 진정한 애국의 길로 여겼던 우치무라에게 기독교인으로서의 사명감을 더욱 강하게 확인시켜 줄 뿐이었다.

조선국은 어찌면 일본국보다 먼저 기독교국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일본국도 역시 결국은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것이 틀림없다. 그리고 시간에서는 조선국이 앞서지만 방법에서는 역시 일본국이 더 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조선국은 혹은 일본국보다 앞서서 외국선교사에 의해 기독교국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일본국은 자기나라 국민에 의해 스스로 기독교국이 될 것이다. ... 우리는 조선인보다 뒤늦게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지라도 그들보다도 좋은 방법으로 그 영광에 들어가리라. 조선국은 어찌면 구미 선교사의 최대의 획득물로서 신께 바쳐질 것이다. 그러나 일본국은 스스로 자기를 신께 바칠 것이다. 우리는 적어도 이 명예를 우리의 어깨에 지지 않으면 안된다.²²⁾

우치무라에게 일본인의 신은 또한 조선인의 신이었으나, 일본과 조선의 경계는 분명하였고, 주체는 항상 일본에 있을 수밖에 없었다. 신앙적 부분을 고려한다고 해도 여전히 우치무라의 모순적 발언으로 느껴지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인데, 이것이야말로 우치무라의 두 개의 J의 통합과 그의 애국심에 의해 성립된 기독교상(像)의 맥락에서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다. 주지하다시피 우치무라는 입신 초기부터 외국선교회로부터 독립된 기독교를 중시하며 모든 면에서 자립한 일본적 기독교를 이룰 것을 주장하고 있었다.²³⁾ 즉 우치무라에게 일본을 구원할 기독교의 복음은 외국선교사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일본인 자신의 힘으로 수행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었다.

나는 지금부터 48년 전, 메이지 11년에 기독교인이 되었다. 당시 일본 전체에 신자는 불과 5천명이 있었다. 기독교는 국민 전체에게 미움을 받았다. 때문에 신앙을 유지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 일본의 교화는 일본인 자신이 이에 임해야 한다고 굳게 마음에 맹세했던 자에게 있어서도 우리나라에서 기독교를 믿는 것은 육신을 가장 불이익한 지위에 놓는 일이었다. ... 그리고 이와 같은 상태가 긴 시간 계속되었다. 기독교는 일본국에 필요 없는 것으로 여겨졌다. 때문에 기독교는 외교(外教) 곧 외국선교사의 종교로서 취급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때에 있어 기독교의 신앙, 특히 외국인에 의지하지 않는 신앙을 유지하고, 유지하는데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 그 선전에 종사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²⁴⁾

20) 「ポーアを慰む」, 『万朝報』, 1902.6.5, 『全集』 10, 182-183

21) 「雜錄-朝鮮國と日本國-東洋平和の夢」, 『聖書之研究』 115号, 1909.12.10, 『全集』 17, 69

22) 「雜錄-朝鮮國と日本國-東洋平和の夢」, 『聖書之研究』 115号, 1909.12.10, 『全集』 17, 70

23) 우치무라는 '무교회'를 일본적 기독교의 구체화로 여겼다. 그의 무교회주의에 대해서는 土肥昭夫 (2004), 186-192 참고할 것.

24) 「今昔の感」, 『聖書之研究』 299号, 1925.6.10, 『全集』 29, 227

이상의 회고에서도 적고 있듯이, 우치무라는 신앙을 유지하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 조차 일본의 기독교화를 일본인 자신의 손으로 해야 할 것을 주장하며, 외국선교사에 의지하지 않으면서 신앙을 유지하고 전도에 종사했던 것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했던 것이다. 여기에서 우치무라가 단순히 서구 문명의 연장선상에서 기독교를 받아들이는 것에서 벗어나 일본인의 심성에 기반한 일본적 독자성을 가진 기독교를 중요하게 여겼던 자세를 확인할 수 있다. 이 점에 있어서 우치무라가 진정한 기독교인은 타인의 신앙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에 의해서만 구원받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나아가 일본의 독자성을 견지하려고 노력했다는 점에서 기독교의 본질과 서구적 기독교의 존재 양식을 준별하는 ‘탈서구적 기독교’라는 발상이 내재되어 있었다고 평가되기도 한다.(양현혜, 2009: 276)

결국 한일강제병합이 이루어지자 우치무라는 기독교인으로서 어디에 가치를 둘 것인가의 문제를 제기하고 심령적 자유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나라를 얻었다고 기뻐하는 백성이 있고, 나라를 잃었다고 슬퍼하는 백성이 있다. 그렇지만 기뻐하는 자도 일시이고, 또한 슬퍼하는 자도 일시이다. 오래지 않아서 두 사람이 같이 주의 앞에 설 것이다. 그리하여 육신에서 행한 바에 의해 심판을 받을 것이다. 사람이 만일 전세계를 얻었더라도 그 영혼을 잃는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만일 우리 영토가 팽창하여 전세계를 함유하기에 이르러도 우리 영혼을 잃는다면 우리는 어찌할까. 아아, 나는 어찌할까.²⁵⁾

우치무라가 병합에 전면적으로 찬성과 축하를 보내고 있었다고는 말할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우치무라는 제국주의 일본의 침략적 식민지화라는 불의의 상황을 직시하려는 노력보다는, 다만 양국 간의 곤란한 이 상황을 타개하여 ‘일선인의 진정한 합동융화’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은 양자가 좋은 기독교인이 되는데 있다는 신앙적 동정론을 펼치는 것으로 그쳤다.

지금이야 조선은 정치적으로는 일본에 병합되어 동일치하에 있다고는 하지만 이것은 다만 외면뿐이고 심중에서는 추호도 종전과 다른 바 없다. … 일선인 쌍방이 함께 좋은 기독교자가 되는 일 오직 이 한가지가 있을 뿐이다. … 이것을 할 수 있는 자는 주 그리스도뿐이다. … 일본인도 조선인도 공히 이 그리스도와의 깊은 관계에 들어가야 진정한 합동이 되는 것이다. … 실로 이 단순한 복음에 의하여 그리스도에게 이르는 것은 많은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최고 좋은 유일한 길이다.²⁶⁾

위와 같이 우치무라는 조선을 근본적으로 구원하는 길은 성서에 의지하는 것밖에 없다고 강조하며, “나는 조선의 기독교가 성서적이라는 것을 듣고 여기에 다대한 희망을 건다. 제군은 원컨대 어디까지나 성서적이 되기를 바란다”²⁷⁾ 라고 요청하는 것을 통해, 그 자신이 일본에 기독교적 신앙의 기초를 쌓는 것을 통해 일본을 구하는 것을 진정한 애국이라고 여겼던 것처럼 조선인 또한 신앙의 기초를 쌓아 조선을 구할 것을 권했던 것이다. 하지만 조선의 독립을 인정하는 사상은 끝끝내 나올 수 없었다. 왜냐하면 우치무라에게 예수는 ‘정치적 독립’까지는 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25) 「領土と靈魂」, 『聖書之研究』 123号, 1910.9.10, 『全集』 17, 332

26) 「聽講錄(二)-教會と聖書-朝鮮人に聖書研究を勧むるの辭 五月三十日夜東京朝鮮基督教青年會に於ける講演大要」, 『聖書之研究』 180号, 1915.7.10, 『全集』 21, 366

27) 「聽講錄(二)-教會と聖書-朝鮮人に聖書研究を勧むるの辭 五月三十日夜東京朝鮮基督教青年會に於ける講演大要」, 『聖書之研究』 180号, 1915.7.10, 『全集』 21, 369

예수는 … 정치적 독립을 꾀하고자 하지 않았다. 그러나 신에게 의지하는 심령적 독립은 백성에게 주고자 그의 생명을 바쳤다. 예수에게 애국심이 없었던 것이 아니다. 넘치고 흘러 넘을 정도로 있었다. 다만 그는 이것을 세상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방면을 향해 기울였던 것이다. 외적(外敵)을 쓰러뜨리려고 하지 않고 내적(內敵)을 멸망시키고자 했다. 정치적으로 독립시키고자 하지 않고 심령적으로 독립시키고자 했다. 애국심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다. 그 사용법의 문제이다. 예수의 애국심은 세상 사람들의 그것과는 전혀 그 사용법을 달리했던 것이다.²⁸⁾

우치무라는 조선 역시 외적인 일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르지 않는 내적을 멸망시켜 심령적으로 독립된 나라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겼다. 따라서 조선인의 독립 요구가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을 전혀 이해할 수 없었다.²⁹⁾ 우치무라에게 내적과 외적의 구분은 전쟁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의 문제 곧 비전론의 관점에서만 현저했던 것으로, 그의 비전평화사상은 두 개의 J사상에서 생겨난 일본 한정의 논리였던 것이다. 그러므로 우치무라는 전쟁에 열광하는 일본 국내의 현실(내적)에 대해서는 날카로운 비판정신을 가지고 임했으나, 이 범주와 아무 상관없는 - 일본의 대결 상대가 아니었던 - 식민지 조선에 대해서는 동정적 태도 이상을 기대하기는 무리였다. 애당초 우치무라는 조선에 대한 제국주의 일본의 침략적 식민지 정책을 비판할 수 있는 자가 아니었다.³⁰⁾ 우치무라가 조선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한 글이 그의 방대한 저작의 양을 생각할 때 극히 소수에 불과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여기서 애국심에 깊이 침잠해버린 그의 사상적 한계를 확인할 수 있다.

2. 조선인의 우치무라 간조 이해

그런데 우치무라의 조선인 제자들은 그의 애국심, 일본에 대한 끊임없는 사랑에 감동을 받은 것으로 족했다. 그들에게도 역시 정열을 바쳐 사랑할 조선이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은 ‘두 개의 J’에의 헌신이라는 우치무라의 사상과 행동에 촉발되어 조국과 기독교 신앙을 예언을 통해 총합할 수 있었는데, 특히 함석헌, 김교신 등은 『성서조선』을 창간하여 성서라는 보편적 진리를 조선이라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장에서 받아들이고, 성서의 진리를 조선의 문화와 역사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사상적 원점으로 세움으로써, 조선을 신의 세계 질서를 대망하며 증거 하는 존재로 형성시켜가고자 노력했다.(양현혜, 2009: 287-288) 그들은 “선생의 존재로 나는 과연 컸으며 그가 나에게 준 감화는 아주 강하다. 그의 열렬한 생명이 이 조그만 존재에 던진 탄환은 말할 수 없이 힘이 있었다”³¹⁾ 혹은, “우치무라 간조!

28) 「イエスの愛國心」, 『聖書之研究』 122号, 1910. 8.10, 『全集』 17, 307-308

29) “조선인은 복음의 진수를 일본인보다도 잘 아는 것 같기도 보이고 또 모르는 것 같기도 보인다. 어쨌든 목하의 저들에게 있어서는 독립문제 쪽이 신앙문제보다도 훨씬 중요한 것같이 보였다. 나 자신으로서는 조선인은 아직 불가해적(不可解的) 문제이다.”(1922년 3월 30일자 일기. 『全集』 34, 32-33)

30) 예컨대 1903년 9월 1일자 『만조보』에 게재되었던 「평화의 실익(平和の實益)」이라는 글을 보면, 우치무라는 일본이 러시아와 ‘전쟁 없이 평화롭게’ 한국을 경영할 수 있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을 통해 ‘조선을 실질적으로 일본의 소유’로 할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또한 1919년 8월 4일자 서간에서는 3.1독립만세운동의 전국적으로 퍼져나가던 가운데 4월 발발했던 제암리학살사건에 대해서 ‘쓸데없는 조작’에 지나지 않는다고 믿고 있다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31) 유석동, 「內村鑑三先生을 追憶하며1」, 『聖書朝鮮』 17号, 1930.6

그는 나의 은사이다. 나의 정신에 이상이 없는 한에는 혹은 내가 세상에서 떠나기까지는 그는 결코 나의 기억에서 없어지지 못할 자이다”³²⁾ 라고 감사해마지 않았으며, 김교신의 다음과 같은 말은 이를 가장 잘 설명한다.

우치무라 간조가 일본의 진정한 애국자인 것은 초기부터 간파하였었다. 자연과학자의 정신에 입각한 성서연구와 국적으로 전 국민의 비방 중에 매장 된지 반 생애에 오히려 그 일본을 저버리지 못하는 애국자의 열혈, 이것이 무엇보다도 힘있게 나를 끌었다.³³⁾

그는 조선에도 만일 우치무라와 같은 애국자가 출현하였더라면 힘을 다해 존경했을 것이라고 말하며,

일본애국자에게 조선까지 걱정하게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일본 애국자는 일본을 열애하게 두어라. (일본인에 대한-인용자) 증오도 생길 것이 없을 뿐만 아니라 가장 아름다운 것을 거기서 발견할 것이다.³⁴⁾

김교신은 우치무라의 애국심을 이해하고 높이 평가하면서, 동시에 자국 일본을 넘지 못했던 그의 애국심의 한계를 인식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인식 위에 서서 김교신은 우치무라와 지속적 교제를 이뤄나갈 수 있었던 것이다. 이 교제는 우치무라의 일본인 제자 즉 일본의 무교회주의 제2세대에 까지도 이어졌으나, 그들 역시 우치무라와 동일한 한계를 노정하고 있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IV. 맺음말

우치무라가 살았던 시대는 근대 일본이 서구 제국주의의 충격을 받고 개국한 이래 천황 제국가로서 국가적 통일을 달성한 시기로, 그는 청일-러일 양대 전쟁의 승리를 잇달아 경험하였고, 그 이후 급속하게 높아간 일본군국주의 하에서 생을 보냈으며, 마지막으로 일본 파시즘이 정치적 지평선에 모습을 나타내기 시작했던 시기에 세상을 떠났다. 이러한 시대를 살았던 우치무라는 대표적인 메이지 일본인의 한 사람으로서 애국심에 불타는 국가주의자가 되지 않으면 안되었다. 그러나 동시에 대표적인 기독교인으로서 초월자애의 신앙을 바탕으로 일본 국가주의에 대한 정면에서의 비판자이기도 했다.(宮田光雄, 1978: 75-76)

우선 우치무라는 진정한 애국과 허위의 애국을 구분해 내는 것을 통해, 국가에 대한 무조건적 복종과 지지를 보내는 것이 애국이 아니며, ‘의(義)’에 기반한 ‘애(愛)’의 실천이라는 측면에서 애국심을 발휘할 것을 요청했다. 그리고 그것은 내부를 비판하고 내부의 적과 대항하려는 자세였다. 그런데 우치무라가 이 세상의 정치적 권능을 신의 세우신 바로 여기고 기독교인으로서 반드시 이 세상의 정치적 권능에 복종할 것을 상정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저항’의 시점을 도출해 내고 있었던 점은 주목을 요하는 부분이다. 즉 현실에 존재하는 국가권력의 기원과 정당성의 근거로서 ‘신으로부터 나온 권위’라는 전제는, 세속적 권위에 대한 복종이 다만 무조건적 복종이 아니라 이 세상의 궁극적 근거가 되는 신의 뜻을 염두에

32) 송두용, 「恩師內村鑑三先生」, 『聖書朝鮮』 18号, 1930.7

33) 김교신, 「內村鑑三論에 答하여」, 『聖書朝鮮』 19号, 1930.8

34) 김교신, 「內村鑑三論에 答하여」, 『聖書朝鮮』 19号, 1930.8

둔 ‘양심’적 복종이 되도록 하였고, 나아가 양심에 어긋나는 복종이라는 것은 존재할 수 없으므로, 마지막으로 ‘양심에 따른 저항’의 시점이 출현할 수밖에 없게 되었던 것이다. 이에 따라 우치무라는 양심에 따른 저항으로서 불의를 불의하다고 선포할 수 있었고, 저항의 방식으로서는 예수가 취했던 무저항주의에 근거하여 무력에 의한 방식은 일체 거부하는 것이 신앙자가 취해야 할 태도이자 진정한 애국이라고 여겼다.

그런데 이러한 우치무라에게 국가의 타민족에 대한 불의의 문제는 논외의 문제였다. 우치무라는 조선에 대해 시종일관 동정적 태도로만 일관하였고, 조선인들의 독립요구가 끊임 없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을 전혀 이해할 수 없었다. 즉 우치무라의 애국심은 그의 ‘두 개의 J사상’에서 생겨난 일본 한정의 논의였던 것이다. 그럼에도 우치무라의 조선인 제자들은 그의 애국심의 한계를 인식한 위에 그의 애국심을 높이 평가한 후, 그의 모습을 통해 기독교 신앙을 통한 자국 조선에의 애국심으로 창조적으로 계승해 나갔던 것이다.

전술했듯이 우치무라에게 애국의 대상이었던 일본이라는 국가는 대일본제국헌법과 교육 칙어를 통해 구축된 천황제라는 종교적 권위를 전면에 내세우고 ‘신민’의 충성과 복종을 고취하는 형태를 띠고 있었다. 곧 천황제 국가체제에 대한 ‘절대적 복종’의 틀에 갇혀 국가에 대한 충성이 무조건적인 복종을 의미한다고 여겨졌던 것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치무라는 국가에 대한 기독교로서의 책임은 양심에 따른 복종과 저항, 곧 무조건적인 충성이 아니라 비판적 충성의 자세를 가져야 하는 것에 있다고 주장했고, 바로 이 지점에서 우치무라의 애국관 혹은 충성관이 차지하는 독특한 지위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타민족 조선인식에서도 드러났듯이 우치무라의 애국심은 일국적인 것으로 국가주의의 장벽을 넘지는 못했다는 한계를 지적할 수 있다. 한편 우치무라 역시 ‘천황’ 그 자체에 대한 비판은 결여하고 있었는데, 이는 결국 일본의 국제로서의 천황의 존재를 통해 일본을 특수화시킬 가능성을 노정하게 되므로 중요한 문제이다. 이와 같은 우치무라의 천황과 천황제 이해에 대한 자세한 검토는 추후의 과제로 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1. 1차 자료

『内村鑑三全集』 1-40, 岩波書店, 1981-1984
『聖書朝鮮』 18-19号

2. 2차 자료

박은영 (2013). “우치무라 간조의 비전론에 관한 연구 - 의전론에서 비전론으로의 사상적 전환을 중심으로.” 『일본사상』. 제24호. 127-151.
양현혜 (2009). 『근대 한일 관계사 속의 기독교』. 서울: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양현혜 (2011). “우치무라 간조의 비전론과 무교회 2세대.” 『종교연구』. 제63집. 231-255
丸山眞男 (1992). 『忠誠と反逆: 転形期日本の精神史的位相』. 박충석, 김석근 공역 (1998), 『충성과 반역』. 서울: 나남출판
同志社大学人文科学研究所編, 土肥昭夫 · 田中真人編著, 『近代天皇制とキリスト教』, 人文書院, 1996
土肥昭夫 (2004). 『日本プロテスタントキリスト教史』. 東京: 新教出版社.(5版)
宮田光雄 (1978). 『平和の思想史的研究』. 東京: 創文社.
宮田光雄 (2010). 『国家と宗教』. 東京: 岩波書店.

3. 인터넷 자료

<http://www.houko.com>.